



Review Article / 종설

氣味論의 基準에 對한 小考
— 麻黃, 桂枝, 芍藥을 中心으로 —
이태희*

가천대 한의대 방제학교실

Brief Review on the Standard of the Taste and Property
-centered on the Mahwang(麻黃), Gyeji(桂枝), Jagyak(芍藥)-

Tae Hee Lee*

Formulae Pharmacology Department. School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his research was performed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ndard of the proper and taste in Korean Medicine.

Methods : The change of the proper and taste of Mahwang(麻黃), Gyeji(桂枝), Jagyak(芍藥) and the change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effect was investigated literally.

Results : The hypotheses could be induced as follows.

The pungent taste of Mahwang(麻黃) and the sweet taste of Gyeji(桂枝) was inserted by Bonchogyongso(本草經疏) in Ming Dynasty. In case of Jagyak(芍藥), the proper and taste was changed into sour and cold at Myeonguibyeollok(名醫別錄). It can be proposed that bitter, warm of Mahwang(麻黃), the pungent and warm of Gyeji(桂枝) and the bitter and neutral of Jagyak(芍藥) in Sinnongbonchogyong(神農本草經) is the adequate proper and taste

Conclusions : Therefore it can be hypothesized that the taste and property of Sinnongbonchogyong(神農本草經) can be established as the standard of the taste and property of Korean Medicine. But in the case of Baekduong(白頭翁), there is the fault of transcribing. So the caution is needed to decide the adequate taste and property.

Key words : The property and taste, Mahwang, Gyeji, Jagyak, Sinnongbonchogyong.

© 2018 The Korean Medicine Society For The Herbal Formula Study

This paper is available at <http://www.formulastudy.com>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緒論

韓醫學에서 韓藥의 藥理를 說明하는 基本이 氣味論이다. 卽 氣는 四氣로서 寒熱溫涼으로서 溫熱은 陽性을 띄며, 寒涼은 陰性을 나타내고 있다. 溫性의 藥物은 緩和, 強壯, 升提 等の 作用을 熱性의 藥物은 發熱, 發汗, 刺戟 作用을 나타내며 涼性의 藥物은 補陰, 止血, 降火시키고, 清熱作用을, 寒性의 藥物은 解熱, 消炎, 鎮靜, 降火, 止血, 瀉下 作用을 나타낸다. 味는 五味로서 酸, 苦, 甘, 辛, 鹹의 五味를 말하며 酸味는 能收, 能澁하고, 苦味는 能燥, 能泄, 能堅하고, 甘味는 能補, 能緩, 能和하고, 辛味는 能散, 能行, 能潤하며, 鹹味는 能軟, 能下한다.¹⁾

이 氣味論에 의해 藥理를 說明하고 있기에 氣味論은 韓藥 理論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氣味가 一관되게 設定되어 있지 못하고 더구나 시대별로 일치하지 않아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어떤 氣味를 기준으로 해서 藥理를 說明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氣味를 麻黃, 桂枝와 芍藥을 중심으로 확인해본 결과 氣味論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기에 중간 결과로서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과 考察

緒論에서 밝힌 것처럼 氣味論을 韓藥理論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本草 方劑書籍에 기록된 氣味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로 麻黃과 桂枝 그리고 芍藥의 예를 들어 氣味論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래서 문헌적 내용과

藥理的으로 연구된 결과들을 인용하여 요약 정리함으로써 氣味論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1. 麻黃

麻黃은 麻黃科(麻黃科:Ephedraceae)에 속한 多年生 草本인 草麻黃 *Ephedra sinica* Stapf. 또는 同屬 植物의 草質莖으로, 中國에서는 中麻黃 *Ephedra intermedia* Schrenk et C.A. Mey 또는 木賊麻黃

Ephedra equisetina Bge.도 使用하며, 氣味가 辛苦溫, 辛微苦溫하며 肺, 膀胱經으로 歸經하여 發汗散寒, 宣肺平喘, 利水消腫하여 風寒感冒, 胸悶喘咳, 風水水腫의 증상에 적용되어 왔다.¹⁾ 따라서 麻黃은 지금까지 주로 發汗散寒 作用을 가진 藥物로서 그 機能에 의해 宣肺平喘과 利水消腫의 作用을 가진 藥物로서 氣味는 당연히 辛苦溫 또는 辛微苦溫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²⁾

그러나 『外科證治全生集·卷四』의 陽和湯에서는 溫陽補血하여 散寒通滯하는 效能으로 陽虛虛寒證에 屬한 陰疽와 貼骨疽等에 熟地黃, 鹿角膠, 炮薑, 肉桂, 麻黃, 白芥子, 甘草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麻黃의 役割은 散寒通滯의 效能으로 사용되고 있다.³⁾ 그렇다면 麻黃을 發汗散寒을 주 목적으로 使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더구나 麻黃의 氣味의 變遷을 살펴보면 『神農本草經』에서 苦溫이라 했던 氣味가 明代 繆希雍의 『本草經疏』에서 辛味가 더해졌고²⁾ 辛味가 가미된 이유가 麻黃을 大辛 大熱한 性格으로 發散風寒에 맞추었다면 이는 실제 氣味라기 보다는 辛味는 金味로서 發散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明代 繆希雍 이후로 麻黃에서 辛味가 發散의 意味로 추가되어 계속 후대에 전해진 것으로 辛苦溫이라고 기록한 학자는 王昶, 吳儀洛 黃宮綉, 黃元御이며²⁾ 苦溫이라고 주장한 학자는 李時振, 張錫純, 張隱庵, 葉天士, 陳修園, 張山雷, 鄒澍 等이다.²⁾

그런데 麻黃에서는 실제로 張山雷가 주장하듯이 辛味가 없다.²⁾ 그러므로 麻黃의 藥理作用에서 辛을 삭제하고 苦味와 溫性이 있는 藥物로 이해함이 안정적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人體에서 어떤 손상이나 antigenic challenge가 있을 때 sensory host-monitoring system에 의해 뇌로 정보가 전달되며 이 정보는 humoral transport에 의해 전해진 免疫情報에 의해 확정된다. 신체에 염증이 진행될 때 exogenous pyrogen으로서 외부 분자와 접촉될 때 염증 매개 인자들(prostaglandins, cytokines)이 免疫細胞에서 분비되어 thermoregulatory set range가 높아지게 되는데 따뜻한 곳을 찾고 cold에 대해 방어 作用을 나타낸다. 이 때 기준 이하의

* Corresponding author : Tae Hee Lee, Department of Formulae Pharmacology, School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1342, Seongnam-dae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13120, Republic of Korea.
Tel: +82-31-750-5418, E-mail: ophm5418@gachon.ac.kr

•Received : May 11, 2018 / Revised : May 14, 2018 / Accepted : May 24, 2018

활동으로 나타난 交感神經이 활동하여 熱을 발생하게 되며^{4,5)} 이 熱이 phagocytosis, 중성구 침착, T-cell 증식 리고 O₂-Rdcial 생성 등을 도와주게 되어 인체에 이롭게 된다.⁴⁾

麻黃의 total alkaloid에 의한 交感神經 흥분 작용으로 이를 치료할 수 있다면 麻黃의 效能은 發汗이 주 목적이 아니라 交感神經 흥분 작용에 의해 치료효과를 나타내게 된다.⁶⁾ 麻黃 alkaloid는 맛이 苦味이고 溫性은 麻黃 alkaloid에 의한 交感神經 흥분 작용이라면 麻黃은 苦溫으로 보아야 한다.

2. 桂枝

桂枝는 녹나무과(樟科:Lauraceae)에 屬한 常祿喬木인 肉桂 *Cinnanomun cassia* Blume . 또는 越南肉桂 *C. loureir* Nees 및 스리랑카 肉桂 *C. zeylanicum* Blume의 嫩枝를 乾燥시킨 것으로 性味는 辛甘溫하여 心.肺.膀胱經으로 歸經하여 發汗解肌 溫經通脈 助陽化氣하여 風寒感冒, 脘腹冷痛, 血寒經閉, 關節痺痛, 痰飲, 水腫, 心悸, 奔豚을 治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¹⁾

桂枝의 發汗과 止汗 작용에 대해 주 작용 부위는 衛分이라는 설, 營分이라는 설과 營과 衛分의 양쪽에서 작용한다는 설의 3가지로 정리된다고 하겠다. 衛分設을 주장한 학자는 黃宮綉⁷⁾, 成無己이며⁸⁾, 營分設을 주장한 학자는 王紘, 黃元御, 唐容川이며 黃元御는 芍藥은 營中の 熱을 淸하고, 桂는 營氣의 鬱을 達하게 한다고 하였으며⁷⁾ 辛甘溫으로 받아들여 肝脾의 作用으로 桂枝의 藥理를 설명하고 있다.⁷⁾ 營衛를 겹쳐서 작용한다는 설을 주장한 학자는 周伯度로서 “桂枝가 營衛를 兼하여 入하고 氣는 外揚하고 內向하지 못함을 알지 못한다. 能히 由陰達陽而不能由陽返陰하는 芍藥의 作用과는 相反되는 作用을 가지게 된다. 桂枝가 營衛를 和하게 하지 못하면 邪汗이 去하지 못하고 正汗이 생기지 못한다”라고 하였다.¹²⁾ 李⁷⁾는 이에 대해서 이처럼 桂枝의 작용점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周가 成無己의 風傷衛 寒傷營의 설명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다면,¹²⁾ 또한 麻黃湯에서 麻黃이 辛溫해서 發汗하는 것이 아닌 表에서의 陰寒에 갇혀진 陽氣를 布散하는 것이라면 桂枝의 역할도 麻黃의 작용을 돕기 위해 陽氣의 布散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桂枝의 氣味도 『神農本草經』에서 辛溫이었던 것이 明代의 繆希雍으로부터 辛甘溫으로

변하였다. 周伯度の 주장도 桂枝의 辛甘溫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甘味를 고려해서 甘入 血分하는 藥理 작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만약 『神農本草經』의 辛溫을 중심으로 해석하자면 營衛의 구분없이 表로 받아들이고 表鬱에 對한 陽氣 宣通의 의미로 辛散溫通으로 이해함이 어떨까 한다.

3. 芍藥

芍藥은 미나리아재비과(毛茛科:Ranunculaceae)에 屬한 多年生 草本인 함박꽃 *Paeonia lactiflora* Pall.의 根을 乾燥한 것으로 氣味는 苦酸 寒하고 肝.脾經으로 歸經하여 養血柔肝 緩中止痛, 斂陰收汗하여 治胸腹脇肋疼痛, 瀉痢腹痛, 自汗盜汗, 陰虛發熱, 月經不調, 崩漏, 帶下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므로 酸 苦寒하여 收斂 泄熱 養血斂陰하고 柔肝止痛하며 平肝抑陽하는 效能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神農本草經』에서는 苦平으로 기재하였고, 『名醫別錄』에서 酸, 微寒 無毒으로 변경하였다. 安과 李⁹⁾에 의하면, 成無己, 張元素, 李杲, 朱丹溪, 繆仲淳, 張石頑, 王昂, 黃元御, 張錫純은 酸寒으로, 徐靈胎, 張隱庵, 葉天士, 陳修園, 吳保神, 鄒澍는 苦平으로 그리고 周志林, 周伯度, 張樹性은 酸苦寒으로 芍藥의 藥理를 解釋하였다.

또한 安과 李⁹⁾는 芍藥의 效能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1) 芍藥을 斂肝으로 解釋했을 때 酸味는 收斂하고 微寒하여 火를 끈다. 故로 收斂肝火하여 收斂逆氣하고 調和血脈하여 木不克土하여 緩中 止腹痛하여 肌肉의 痙攣痛과 鼻衄을 治하며 安脾肺 治肺脹하고 益陰於裏虛하여 瀉痢後重을 治療한다.

(2) 降氣라고 설명하면

苦味는 火를 泄한다. 平은 平정한다는 의미에서 金氣이다. 故로 鬱滯되고 위로 치솟는 肝火를 疏泄시킨다. 肺에서부터 하강하며 金克木하여 上충한 肝火를 억제한다. 下行하는 肝主疏泄의 作用의 원동력은 肺에 있다는 것이다. 腹痛, 脇痛, 寒熱往來, 癰腫, 堅積을 疏泄하여 破氣滯하므로 治하는 것이고, 汗出도 肝火를 制壓하여 淸熱해서 이루어지며 鼻衄, 目瀉, 肺脹 喘急, 小便不利, 瀉痢後重을 治療하는 効能이 鬱滯된 氣를 行氣 降氣해서 可能하며, 淸肝火 疏泄肝氣로 治療된다고 說明한다.

(3) 收斂과 降氣를 같이 受用할 때 酸味와 苦味が 모두 있다는 주장인데 특히 周伯度는 실제로 신맛이 난다고 하였지만 收斂보다는 降氣에 무게를 두고 설명하여 收斂은 鄒澍가 말한 破而不洩이라고 하여 破氣滯 하지만 氣虛를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설명한다."라고 하였다.

安과 李는⁹⁾ 또한 각 說의 문제점에서 斂肝으로 해석할 때의 문제점으로

“①通하지 않는다면, 收斂된 肝氣가 더욱 鬱滯될 우려가 있다.

②血脈이 調和를 이루어 惡血이 흘러지며 木不克土로 調血되어 肝기능으로서 藏血과 脾기능으로서 統血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했지만 일시적 皮下出血에 적용하면 가능한 설명이지만 除血痺 破疝癥結堅結寒熱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다.

③抗茵作用을 설명하기 어렵다.

④瀉痢後重을 裡虛症으로 보아야 한다.

降氣라고 할 때의 문제점은 破堅積疝癥를 通血中之氣로 얼마나 없앨 수 있는 가이다. 이는 本經에서 말한 증상이 어느 정도이냐에 달렸다고 본다. 鄒澍의 말대로 芍藥을 單用時 凝結된 피를 깨뜨리기는 힘들다고 본다."라고 하며,

收斂과 降氣를 같이 해서 설명할 때 胃氣가 弱한 경우에 쓰지 못한게 한 것과 不洩이라 한 것이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苦味로 말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였다.

安과 李⁸⁾는 결론에서 “芍藥은 金性이며 作用은 降氣, 破血中之氣滯이고 芍藥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臟腑는 肺이며, 肺의 通下氣에 의해 肝의 疏泄作用이 힘을 얻어 약효를 발휘하게 된다. 이로 볼 때 芍藥의 性味는 苦平과 酸寒 중 苦平에 의한 藥理說明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여 芍藥의 氣味를 『神農本草經』과 같은 苦平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芍藥에 酸味가 없다는 것이다.

或者는 이렇게 말한다. 固有氣味와 機能氣味로 區分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固有氣味에서 機能이 나오는 것으로 氣味를 해석하면 機能氣味는 다분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固有氣味로 이론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喻嘉言과 趙以德은¹⁰⁾ 越婢湯에서 婢를 脾로

解釋하기 위하여 石膏와 麻黃의 氣味를 甘寒과 甘溫으로까지 변형하여 설명하였다. 이로 보건데 자신의 이론에 맞추기 위해 氣味의 변동을 일으켜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白頭翁의 경우 張은¹¹⁾ 『本草正義』에서 苦溫으로 『神農本草經』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効能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苦寒으로 고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며 현재 출판된 『神農本草經』은 여기저기에 흩어진 내용을 모아둔 것이므로 필사 오류라고 해석했다.

이로 보건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氣味の 근본을 『神農本草經』을 기준으로 하며 그에 따른 藥理 해석도 『神農本草經』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韓藥의 藥理를 이해하는 데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氣味가 통일이 되면 藥理 해석의 오류와 새로운 藥材의 氣味 판단에도 유용하리라고 사료된다.

다만 이 논문은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 내용이 아니라서 최종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곤란하여 氣味論에 대한 하나의 가설로 판단해야 한다.

III. 結論

氣味の 기준을 설정하고자 麻黃, 桂枝, 芍藥의 氣味の 변화와 그에 따른 효능 해석의 변화를 文獻적으로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 1) 麻黃의 氣味는 苦溫과 辛苦溫, 辛微苦溫이 있는데 辛味는 明代 『本草經疏』에서 삽입된 바, 『神農本草經』의 氣味로서 苦溫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2) 桂枝의 氣味는 辛溫과 辛甘溫이 있는데 甘味는 明代 『本草經疏』에서 삽입한 바, 『神農本草經』의 氣味로서 辛溫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 3) 芍藥의 氣味는 酸寒과 苦平이 있는데 酸寒은 『名醫別錄』에서 수정한 것으로 『神農本草經』의 苦平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氣味の 기준을 『神農本草經』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설 일 수 있다.

다만 白頭翁의 경우를 보면 필사의 오류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향후 더 깊은 研究가 이루어져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Herbology Textbook Committee for Nationwide School of Korean Medicine Compilation. Herbology, 2nd ed. Seoul:Yeongnimsa, 2011:73-80, 151-155, 635-636.
2. Tae Hee Lee. Literature Investigation on the Diaphoretic Effect by the Pungent Taste of Mahwang, Journal of Kyung Won University Korean Medicine Research Center, 2000;3:129-135.
3. Formulae Pharmacology Professors of Korean Medicine School Compilations. Formulae Pharmacology, 2nd ed. Seoul:Yeongnimsa, 2006:603-605.
4. E. Zeisberger. From humoral fever to neuroimmunological control of fever, J. of Thermal Biology, 1999;24:287-326.
5. Kelley S. Madden. Sympathetic neural-immune interactions regulate hematopoiesis, thermoregulation and inflammation in mammals, Developmental & Comparative Immunology, 2017;66:92-97.
6. You-Ping Zhu. Chinese Materia Medica-Chemistry, Pharmacology and Applications, Netherlands: harwood academic publishers, 1998:45-51.
7. Tae Hee Lee. Literature Investigation on the Pharmacological Mechanism of Diaphoretic and Antidiphoretic Action by Gyeji, Journal of Kyung Won University Korean Medicine Research Center, 2000;4:81-87.
8. Seong Mugi, Gwon 2 In:Seong Mugi. Sanghannon, Daebuk:Daeman junghwaseoguk, 1977:22-26.
9. Soo Jin Ahn, Tae Hee Lee. Review on the Therapeutic Mechanism and the Proper and Taste through Literature Investigation of the efficacy of Jagyak, Journal of Kyung Won University Korean Medicine Research Center, 2002;5:45-65.
10. Rami composed. Gogumyeonguibangnon, Gang 1st ed. Gangso:Gangso gwahakgisulchulpansa, 1983:88-89.
11. Zhang Soo Yi. Bonchojeongui, 1st ed. Seoul: Cheonghong, 2009:142-143.
12. Joo Baekdo. Bonchosabyeollok, Sanghae:Sanghaegwahakgisulchulpansa, 1985:124-143.